

‘해가 지지 않는 서산’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이 완 섭 | 서산시장

1957년 충남 서산 출생
2011년 송실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2003년 행정자치부 총무과 서기관
2009년 서산시 부시장
2011년 민선 5기 서산시장
2014년 민선 6기 서산시장

▲ 당선된 소감?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먼저,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경선을 치르고 레이스를 같이 한 모든 후보님들을 비롯해 지지하신 모든 분들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위대한 선택이자 서산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일궈낸 17만 시민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같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염원을 가슴 속 깊이 담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서산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농어민이 행복한 농축수산 도시, 희망이 넘치는 교육건강복지 도시, 활력 넘치는 시통팔달 산업경제 도시,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국제적 관광 도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재난안전 생태 도시를 통해 ‘해 뜨는 서산’을 ‘해가 지지 않는 서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 그대로 시민 여러분을 진정으로 섬기며, 시정의 주인이 시민 여러분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표 한 표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선 6기 서산시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서산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오는 8월 해미읍성에서 개최되는 천주교 아시아-한국 청년대회의 차질없는 준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교황방문 준비단(4부 28반)을 구성하였고 6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행사운영, 기념사업 등 총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는 해미읍성은 7월말까지 6억 원을 들여 내부 관람로, 배수시설, 진남문 지붕을 보수하고 해미읍성에서 순교성지까지 1.2km 구간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관문과 이동 구간에 위치한 구조물은 지역 특성을 살려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TV를 통해 전세계에 생방송될 예정으로 해미읍성이 전세계 천주교 신자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천주교 성지로 널리 알려질 것이고 이후 국내·외 관광객과 순례객의 방문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총 1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미읍성 주변에 순교자의 길(14처) 정비와 시복자 3위 동상 건립 등 교황방문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교황방문과 관련하여 각종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해미읍성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지난 2년여간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이제부터는 서산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서산을 위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시민의 활발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정을 펼치겠다.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은 모두 103건으로 대표적인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농어민의 행복한 농·축·수산물도시 건설을 위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구축,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

● 특집6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희망이 넘치는 교육·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실시,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과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노인복지타운과 고용 복지 문화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활력 넘치는 사통팔달 산업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과 서산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대산4일반산업단지,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서산남부산업단지, 서산3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4년의 재임기간 동안 매년 20개 이상씩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주력하겠다.

또한,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 지방도 649호선 등 지방도로망, 동서간선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서산 대산항 자동차부두 건설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국제적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미읍성 및 천주교 성지의 세계적 명소화 추진,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조성, 천수만 권역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삼길포항 관광자원화사업과 더불어 외국자본을 유치해 세계테마파크를 조성함과 아울러 종합예술회관 및 예술인 창작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재난안전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4시간 통합안전센터와 부녀자·노약자·청소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복합 공용터미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공원 조성, 관내 명산 등산로 정비,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군 전역자,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은퇴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만,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에서는 우범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통합 관리하는 24시간 통합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유시티(U-City) 기반을 바탕으로 부녀자·노약자·청소년 안전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해 나가겠다.

또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고용유발효과 10,500명, 생산유발효과 9,100억 원, 지방세수 년 312억 원 증대효과가 기대되는 서산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현재 특구의 진입로 2곳의 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특구내 연구시험동이 금년도 10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하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부품공장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서산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신규사업으로는 국내에서 또 하나의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미 호주와 5,000억 원(추정) 규모의 투자 원칙에 합의한 상태로 앞으로 투자내용과 사업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201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미래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먼저, 현재 진행중인 5개의 산업단지가 모두 준공되어 총 15개의 산업단지에서 공장들이 힘차게 돌아갈 것이고 국도 38호선,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649호선, 간월호 관광도로와 동서간선도로 등이 모두 개설되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게 됨은 물론, 대신항에서는 중국 룡청시와 국제 쾌속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것이다.

산업단지의 개발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여 인구 20만 명을 훌쩍 넘는 중견도시로의 기반을 갖추게 되고 시의 예산규모도 1조 원에 육박하여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들이 폭넓게 추진됨으로써 서산시가 명실상부 서해안시대의 중심, 충남의 대중국 관문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세계테마파크가 조성된 서산은 바야흐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관광도시로써 각광을 받게 되어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는 선거기간에 있었던 불협화음이나 안 좋은 기억들을 모두 잊고 더 나은 서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금 서산은 충남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며 힘찬 용트림을 하고 있다.

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시정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채찍질을 부탁드린다.